

고은 불교 대하소설

지옥의 남작

남작은 지난 날의 한 죄인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예성강에서 왜인(倭人-日本人)의 섬 대마도로 가는 밀무역선(密貿易船)배를 탔을 때의 일이었다.

평소 부딪치기만 하면 까닭없이 으렁대던 사이의 탈보 사공이 있었다. 그 탈보는 자주 배를 옮겨 타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물에서도 배에서도 누구와 싸우는 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성강 하류 이쪽 저쪽의 나무의 숲길 주모들이 그가 나타나면 '아이고 아수라(阿修羅)가 왔네'라고 꼬리를 사리는 것이었다. 아수라는 무엇인가. 실 틀 없이 싸우고 다루는 일로 하루하루를 다하는 충성이 아니던가.

바로 이 탈보 아수라와의 동행이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 송도 일대의 비단과 홍삼을 허가없이 배에 실어서 신새벽에 떠나 남바다 북관으로 나아가 거기서부터 남작

의 사타구니를 내질렀다.

두 사람이 함께 무너져서 주저앉았다. 남작이 탈보한테서 놓여놓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된 것이다. 때마침 선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가 그 안개 속의 대마도 새벽에 떠났다. 제주도 앞바다의 무인도 관탈봉(冠脫峰)을 지나면서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탈보 아수라가 남작을 똥똥이로 쳤다. 그러나 등 뒤의 찬 기운이 감도는 느낌 때문에 그 순간 틀어지다가 그 똥똥이질을 피할 수 있었다.

마침 파도는 앞전하였고 배에 탄 사람이 나 밀수품들도 고조너하였다. 오직 남작과 탈보만이 살기를 쫓게 된 것이다.

"나쁜 종자 같으니라구... 뒤에서 치는 놈이구나... 너에게 달린 X값도 못하는 놈이구나"하고 남작의 노여움이 컸다. 남작은 발길질로 이름이 나 있었다. 바로 그 발길질로 탈보의 뺨구리를 질러댔다.



수미산

미 밤새도록 찬 물 속에 있었으므로 남작의 몸에는 체온이 담겨질 수 없었다. 몸이 식어버린 것 뿐 아니라 굳어져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헤엄치려 했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남작의 저승길은 시작된 것인가. 명도(冥途)는 어둡다. 남작이 이따금 죽을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치다가 파도덕이에 타고 오를 때의 본능으로 눈을 떠도 그의 눈 안에는 하늘이나 바다가 아니라 다만



그림 · 조향숙

하지만 그의 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파도 위를 가르는 헤엄으로 아침해가 떠올라 하늘과 바다 사이가 환한 세상으로 될 때까지 갔다. 그런 다음 그는 너무나 지쳐서 송장해염으로 누운 채 나아갔다.

이러기를 반복함으로써 그의 몸안의 힘을 거의 다 소모하게 되었다. 문득 남작의 눈에 그가 손을 흔들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어선 두척이 먼 바다의 어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살려주오!" 하는 소리는 그러나 남작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작의 손이 치켜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몸안에 들어오는 힘의 극한까지를 헤엄치는 힘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둠만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옛날 동양과는 다른 고장에서 이런 어둠의 산인 사출산(死出山)이 있어서 그곳에 먼저 간 영혼이 다음에 올 영혼에게 심부름하는 광공조(郭公鳥)가 있었다. 빼구기가 바로 그런 새였다.

하지만 남작의 귀에 빼구기 소리가 들릴 리 만무하였다.

현세의 양(陽)과 달리 생명이 갖추고 있는 마르마(말마-末摩)가 끊기면 바로 음의 세계인 중음(中陰)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구슬픈 중간 정류장이기도 하다.

어떤 부자나 어떤 지배자도 그가 현세에서 수많은 부장품(財物)으로 만들어진 영원불멸을 위한 제왕의 능을 쌓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의 장난일 뿐이다. 죽은 자는 터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다. 저승은 고사하고 중음의 세계조차도 다만 향기만을 머금고 살기 때문에 일체의 물질세계는 허용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저승에의 여행은 향기를 먹는다(食香)'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거나 남작은 그야말로 죽을 힘조차 없도록 몸 속의 힘을 다 써버림으로써 그가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욱 뻗어버렸다. 남작의 의식으로는 의식의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현세에서 쓰던 의식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공포도 절망도 아무런 슬모가 없는 허물없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아니 그 따위 감각의 마지막까지 다 사라진 것이다. 누가 중얼거렸던가.

움직였다가 그 움직임을 끝마친 성과이기도 하였다.

이제 남작의 영식(靈識)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절차에 의하면 죽은 뒤의 첫 7일째에는 아직 지옥이라는 행선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첫 7일의 심판은 진광왕(眞廣王)이다. 그는 죽은 자가 생전에 살생을 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일은 간단하다.

두 번째의 14일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초강왕(初國王)의 화신(化身)으로 죽은 자를 살핀다. 세 번째는 문수보살, 네 번째는 보현보살, 다섯 번째 7일에는 지장보살, 여섯 번째 7일인 42일에는 미륵보살 그래서 49일에는 약사여래가 나와 심판한다.

그런 다음 삼도천(三途川)을 건너가는 것이다. 저승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다.

세군데의 나무로서 산수탄(山水灘) 강심탄(江深灘) 유교탄(有橋灘)이 있다. 그런데 다리(橋)가 있는 여울은 지옥 쪽으로 가는

남작의 혼백은 지옥으로 가는 복잡한 절차를 싫어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초강왕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촌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자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 나머지 여울 중에도 물살이 거센 곳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다.

강을 건너서 가까스로 몸을 내쉬는 혼백은 의령수(衣領樹) 밑의 노인(老翁)과 노파를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현의웅(懸衣翁)과 현의부(懸衣婦)이다.

죽은 자의 혼백은 그곳에서 지난 날의 옷을 벗어서 의령수 가지에 걸면 생전에 지은 업장에 따라 가지가 휘거나 덜 휘거나 한다.

남작의 신랄한 혼백은 이런 절차가 무척이나 싫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초강왕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촌음(寸陰)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때 초강왕의 보좌가 책책으로 바답을 쳤다.

"지옥이라고...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줄 아는가. 그것은 그대가 같은 일을 했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지장보살의 지옥 원력은 그가 보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야."

어떤 부자나 지배자가 영원불멸을 위한 제왕의 능을 쌓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의 장난일 뿐이다. 죽은 자는 터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으로 캣머리를 들었다. 웬만한 일로는 조선 서해안의 포구에 배를 탈 수 없는 사장이었으므로 며칠을 두고 먹을 것이나 물 따위도 착실히 준비해 둔 것이어서 세족 뚝배기 배 홀수선이 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5일만에 대마도에 이르러 그 안개 속의 북쪽 암초 사이를 스며들어 정박하였다. 한밤중 섬 쪽에서 전마선(典馬船)이 서너번 불빛 신호를 받고 가까이 왔다. 왜인 막부(幕府)와 서쪽 번(藩) 우두머리들이 지극히 좋아하는 피륙과 홍삼이 부지런히 옮겨갔다.

이 은밀한 하역이 끝나면 이번에는 왜장의 도키나 삼목(杉木)으로 만든 목공예품 그리고 예성강의 풍류에 팔려가는 왜녀 약간명 따위를 실어야 하였다.

탈보가 선장이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바로 그런 왜녀 하나를 끌고 왜의 전마선에 타고 도망치려는 것을 남작이 막아야 하였다.

"안되어! 탈보나라에서 왜놈이 되어 살 작정인가. 하필이면 왜놈의 종이 되어 왜놈 발바닥이나 훑아주고 살 것인가... 안되어! 그 계집이야 예성강에 가서도 그대의 돈으로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 작자가! 오늘밤이 네 재삿날이 되었구나" 하는 말과 함께 남작의 목살이 잡혀 공중에 뿔었다. 그때 남작의 정경이가 탈보

"아이쿠!" 하고 탈보가 뺨전에 몸을 걸 반쯤 걸치더니 그 한쪽 무릎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기척도 없었다. 그것은 남작의 발길질 한번으로 그의 명치끝이 꼭 막혀버려서 숨을 놓았기 때문이다.

"탈보!" 하고 남작이 어둠 속의 물에 대고 불렀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배는 이미 탈보의 시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탈보의 시체에는 재빨리 고기들이 모여들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뜻밖의 과실치사사건을 저지른 남작은 끝내 그가 탈보를 죽인 것을 자백하는 일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 그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인이 되지 않는 바 아니었다.

그래서 남작은 며칠 전에 마련해둔 두 길짜리 소나무 하나와 함께 물속에 잠겨 헤엄쳐 갔다. 그 소나무는 사람 하나의 체중을 넉넉히 실을만 하였다.

정작 남작은 헤엄치기를 아끼고 있었다. 그저 발로 물을 밀어내는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남작이 무욕도에서 멀리 나아가는 밤이 다하고 그의 뒤에서 먼 동이 트고 있을 때 새로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서 소나무를 놓아버렸다. 그때부터 그는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이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월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컥려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진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구,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들 작품을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